



스스럼이 없어야 한다.
 때로는 소리를 질러야 한다, 주장이든, 절규이든.
 '같이'함은 '따로'함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차이의 융합은, 어쩌면 다양성의 방대함으로 설없이 상쇄되는
 무한의 순환투프일지도 모르므로.
 그러나 주질러앉은 개개의 고립이 전될만하지 못할 바에야
 설사 그것이 절망이더라도 내질러보는 거다.
 어차피 살아간다는 것이, 여성으로서 견디어내는 것만으로도, 고단함이 아니던가.

총여보관왕

연세대학교
 여성자치단체 한마당

따로 또 같이



1998년 4월 11일 목요일
 낮 3시
 한지당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질서
 여/성/주/의 제 10대 총여학생회

여성자치단체 한마당 "따로 또 같이"를 열며

제 10대 부총여학생회장 최전승민

이번 만남의 의의는 산발적으로 존재해왔던 여성 관련 모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현대의 지점들을 찾아나간다는 데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실, 연세대 내에 여성학/운동 소모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학회, 소모임 내지는 위원회 형식의 모임들이 있었음에도 그것들이 가시화되지 않은채 생겼다가 소멸하던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여성운동에 대한 담론이 효과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통로가 형성되지 못했으며 논의들이 자신의 모임 내로만 '흡수'되어 버리게 되었다. 자치단체들의 물질적 상황이 열악한 데다가, 어느 모임의 문제의식이 발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극을 서로 줄 수 없었다는 것도 자치단체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함께 할 지점을 찾는다는 것은 서로를 위로해주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자극과 비판을 하는 과정일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각 모임이 자기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고 전문화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여성운동이나 여성학만큼 일상과 정치, 이론과 실천의 경계선들을 넘나들 수 있는 영역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세미나를 하면서 생기는 세상에 대한 갑갑함을 자신의 삶 속에서 작게나마 실천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사적인 것으로 치부되어버리는 여성문제, 일상으로만 갇혀있는 자신의 삶을 들춰내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더군다나 그것이 하나의 모임에서 집단적으로 표출한다고 했을 때에는 더욱 깊은 고뇌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대학사회에서 여성 자치 단체의 위치,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의 나의 사람 - 막막하게만 들려오는 거대함과 작은 나와 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서로 간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실천 방안들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욕구들을 어떻게 활동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연세대학교
여성자치단체 한마당

따로 또 같이



1998년 4월 11일 ■ 요 일
늦 은 3시
는 지 당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질서
여/성/주/의 제 10대 총여학생회

글 쓰는 순서

1. 자치단체 한마당 "파로 또 같이" 진행순서 2
2. 자치단체 한마당을 준비하며 3
3. 지금,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주의운동에 관한 몇가지 작업 가설들 5
4. 총여학생회,
올림푸스 산을 벗어난 메트로폴리스의 건설을 향하여 9
5. 총여학생회 집행부 소개와 사업계획안 15
6. 자치단체 글마당 28
 - 에포레
 - 여성주의 문화 실험 모임 "올 WOMB"
 - 이과대 여학생회
 - 법대 성연구모임 "동쪽"
 -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BEYOND"
7. 제안합니다. 42
 - 현 에포레 공간 문제

여성자치단체 한마당 "파로 또 같이"

진 · 행 · 순 · 서

1. 노가바 - "옴" 친구들의 '노래가사 바꿔부르기' 공연
2. 총여학생회, 자치단체 소개
3. 총여학생회의 발제 - 전체 총론, 각국 사업계획, 예산안
4. 자치단체들의 발제
 . 전문화 아이디어와 아이템 생산에 대한 이야기 (by 옴, 비온도, 이과대 여회)
 . 자치단체들의 물리적 상황과 위상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 (에포레 공간...)
5. 지속적 연석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6. 빠방한 뒷풀이 ☺

"이름 포 토끼"

이.순.영.영

이제,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고민들을 공유해보고 때로는 생각만해도 벅찬 의문들을 함께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찾아보자!!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의하지 않는 모임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방학 동안 진행하려던 연석회의가 지지부진해졌다. 방학 동안 진행되었던 회의 테이블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 당시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짚어내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가 이번 총여학생회-자치단체 간의 만남이 되었으면 한다. 방학 동안 몇 차례, 총여학생회와 약 5개의 자치단체들이 연석회의를 진행했었다. 그러나 몇 번 모이고 나서는 회의가 지지부진해졌다. 이것은 방학이라는 객관적인 상황 때문이면서도 또한 총여학생회나 각 단체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에 더욱 큰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 즉, '모인다'라는 추상적인 공유지점만 있을 뿐, 자치단체들이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과 요구들이 회의의 의미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인다'라는 것 자체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속적인 모임을 갖기에는 너무나 큰 '대의명분'이었다. 이번 만남은 자치단체들의 보다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고민이나 문제의식, 요구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에게 힘과 도움이 되는 자리였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자리에서 '자치'란 어떠한 의미인지 되살려봤으면 좋겠다. '여' 학생회로서 자치의 의미 또는 '비' 학생회로서 자치의 의미들.... 그리고 여성문제를 고민한다는 측면에서 자치의 의미들. 학생회는 선거를 통한 대표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학생회가 아닌 자치 모임은 일상과 끊임없는 긴장감 속에서 그야말로 직접민주주의적 실천들을 할 수 있는 힘을 내재하고 있지 않을까? 이러한 힘과 가능성들을 크고 작게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들을 만들어보자!!

지금,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주의운동에 관한 몇 가지 작업 가설들...

제 10대 부총여성학생회장 최전승민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독자적 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을 만들어나간다. 끊임 없는 창조와 실험의 운동으로, 모든 국가주의적 권위주의적 위계질서에 반대하며 그것을 해체시킬 일상의 정치화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적 원칙들을 지향한다!!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일터와 가정, 임노동과 기사노동, 공/사의 구분을 그 토대로 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상품 생산을 주로 하는 사회적 영역과 생산에서 배제되어 있는 가정의 이분화는 성별노동분업과 함께 **남성**에 대한 따라 다른 형태를 만들어 내는데, 이것은 근대적인 우열과 열등의 이분법의 논리와 결합되어 공적 영역=남성=생계부양이라는 등식과 사적영역=여성=가정이라는 등식을 확립시켰다. 물론 여성에게도 사회노동을 할 수 있는 문이 열려있긴 하지만, 여성의 노동이란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되면서 저임금 불안정직의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현재의 경제위기 속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고개 숙인 남자' 부류의 이데올로기는 이미 지난 총파업 때부터 시작해 현재 경제 위기 속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자본주의적 공과 사의 분리 속에서 이미 주변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동은 노동의 유연화라는 면목으로 그 위치가 악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여성을 다시금 가정으로 되돌려보내고 규제하려는 역할로 작용하고 있다. 불안정 임시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은 정리 해고 1순위가 되어 하루빨리 회사에서 쫓겨나 가정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의 경제위기가 마치 여성이 가정으로 돌아가 어여쁘고 알뜰한 주부가 되어 가장인 남편을 뒷바라지 잘 해 진정한 애국시민이 되면 해소될 것인 양 지배계층은 떠들어대고 있다.

현재의 경제위기 속에서 가족이데올로기가 강화되고 여성노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대중매체를 통한 '페미니즘'의 탈정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자본의 원만한 이동을 위해 사회가 개방되면서 여성들도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이데올로기가 대중매체 속에서 형성되고 있다. 언론들은 21세기를 정보화시대로 규정하면서 3F(Feminine, Film, Fashion)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한다. 미래의 주역은 여성이며, 감성, 섬세함 등의 '여성적'인 특성들이 사회를 풍요

롭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현실화시켜 주는 것만 같은 희망을 품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분명 어구임을 안다. 사회가 더욱 발전한다는 의미는 현 체제 속에서 여성을 배제한 '발전'일 뿐이며, 대중매체의 현란한 언어들은 여성들을 유혹시키고 있다. 가부장제 사회에 도전하고자 하는 페미니즘과 여성운동을 마치 이 시대의 개성과 유행인양 왜곡시켜 그 '위험성' - 정치성 -을 탈정치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 자본주의의 확장, 민족·애국주의 이데올로기의 강화와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가족이데올로기의 강화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까지 파고들고 있으며 여성의 삶을 더욱 험난한 질곡 속으로 몰아내고 있는지를 읽어내고자 한다. 이 사회 속에서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되어져 버리는 여성의 삶, 사소한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들의 유대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정치화시켜 행동하고자 한다.

여성주의는 **문화** 문제를 배제해버리는 협소하고 억압적 정치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운동이다. 정치 경제 문화의 삼분법을 넘나드는 운동이며 궁극적으로는 그 근대적인 경계선들을 어루는 운동이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이것은 거대한 사회적 변화 속에 작은 여성의 위치가 묻혀지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며 또한 개성의 이름으로 개인주의를 초래하는 왜곡된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입장을 가하는 것이다. "경제와 거대적 정치 흐름이 우리의 작은 삶까지 뒤돌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며 우리의 일상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지극히 정치적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하나의 독자적 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을 지향한다.

흔히들 들을 수 있는 '조국통일' '노동해방'이라는 핵심적 기치가 설명해주듯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말엽의 현재까지 이것은 학생운동의 중심적인 사상이다. 사회구조의 모순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고 있는 이러한 사상적 지반은 학생운동의 절대절명의 진리로 위치하게 되고, 학생운동은 이러한 지반 위에서 대사회적인 투쟁들을 벌려 나가왔다. 이러한 투쟁의 과정 속에서 학생운동은 자신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으며 학생운동의 이념은 '통일'과 '노동'이라는 단일함을 취하게 되었다. 그 안에서 학생운동의 사상적 지반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여타의 다른 운동들은 통일이나 노동운동에 종속되거나 부차적인 것, 주변적인 것으로 취급받았다.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원리 또는 노동해방의 원리는 학생운동을 '단결'시키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이것은 결국 다른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작용을 했던 것이다.

90년대 중반까지의 대학 여성운동은 이러한 조건들 속에서 독자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성주의적 방식으로 여성해방을 고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은 물론, 이것은 대중적인 세력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특히, 자주 민주 통일의 원칙에 기반한 민족주의 여성운동은 '민족주의'라는 가부장적 담론을 그대로 답습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민족담론은 '민족' 내부의 이질적인 집단들을 단일화시키는 지배담론으로 작동하면서 내부의 다양성에 대해 억압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현재 한

총련 산하에 있는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전여대협) 운동이 처해있는 위기가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조국통일이라는 대의명제 속에 여성문제를 가두어 결국 가부장적 질서를 그대로 재생산하게 된 것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모순들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곳에 작동하고 있다. 이 사회모순들은 단 하나의 원리로 설명되고 단 하나의 운동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여성운동은 세계에 걸쳐 있는 가부장적 권력 구조를 봐야 하며 이 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는 모든 질서에 문제제기를 할 독자적인 운동을 펼쳐나가기 한다.

모든 국가주의적, 권위주의적 위계질서에 반대하며 일상의 정치 속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한다.

근대국가의 정치이데올로기는 성적 차이나 인종적 차이, 등 '차이'를 인정하는 문제설정이 없다. 이는 공동체 내부에서 차이를 차별로 곧장 연결시켰으며, 사물을 보는 모든 방식에서 이분화하고 위계화하는 태도를 취하게 했다. 즉 공과 사, 이성과 감성, 자연과 문명, 정신과 육체, 정상과 비정상 등으로 이분화하면서 어느 것 하나에 우월성을 부여하고 다른 하나를 억압하는 사고체계를 확립시켰다. 이러한 구분은 성별 위계질서와 연결되어 우월한 것은 남성, 열등한 것은 여성과 동일시 되었다. 다시 말해 근대사회는 주체와 객체를 분리시키고 주체에게는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객체에게는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특성을 연결시키면서 주체의 지배하에 객체가 소외되는 이분법적이고 위계적인 가치체계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모든 정치성은 우월한 계급과 성과 인종에게 부여되고 열등한 계급과 성과 인종은 그 어떠한 정치성으로부터 배제되었다. 근대나 가족, 그리고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과 공동체 속에서 여성은 항상 가장 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계질서는 가부장적 권력 구조를 지속적으로 공고화하고 재생산하고 있다. 우리가 예전에 받은 교육과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학사회를 보라. 가장 객관적이라고 하는 교육마저도 성차별적이며 여성들을 끊임없이 주변인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가부장적 위계질서 속에서 여성들에게는 모든 정치성이 거부되어져 왔으며 여성들간의 연대기 불가능하도록 여성들은 개별화되었다. 여성들간의 유대를 불가능하도록 하는 여성적 문화들은 이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대국가의 정치적 중심과 비정치적 주변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는 바로 대의제 - 간접민주주의이다. 우리의 정치적 권한을 투표 한 장으로 국가에게 위임한다. 이것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정치성의 전부이다. 이러한 정치는 우리가 보아왔듯이 사회의 주변 집단들을 배제시키는 정치이다. 우리가 이러한 정치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대의제에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며 우리의 사고 속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자리잡고 있는 대의제에 대한 환상을 깨야 한다는 의미이다. 정치의 주체/대상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서 새로운 정

치를 정의해야 한다. 즉, '위임과 대행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그 자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권력이 모이는 중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중앙에 대해 비판적인 능력을 가지며, 권력의 일방적인 흐름에 거슬러 그것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말로만의 '대중'이 아닌 진정 다수에 의한 정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주의 정치는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의 정치이며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되는 정치이다. 일상을 정치화시켜내면서 우리의 정치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획일적, 국가주의적, 권위주의적 질서를 거부하고 해체시킬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여성주의는 실험적이며 창조적이며 자발성에 근거한 생활로서의 질서이다. 차이를 인정하며 거기서 비롯되는 다양성을 분열이 아닌 연대와 단결의 시발점으로 삼는다. 우리는 간접민주주의의 단순한 보완으로서 직접민주주의를 간주하는 부르주아적 사고방식을 거부하며 오히려 새로운 대안으로서 직접민주주의를 사고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치' -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는, 여성으로서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는 - 일 것이다.

운동은 끊임없는 실험과 창조의 과정이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사회의 모습을 가부장제에 물든 현재의 언어로는 규정할 수 없고 또한 그래서도 안될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는 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단지 허무적인 '부정'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긍정을 창조해낸다.

여성주의는 다른 유형의 힘, 지성, 그리고 감수성을 계발하는 운동이며 거시적인 해방을 목표 삼는데 그치지 않고 명백한 개인적 사슬들의 제거를 넘어서까지 확장되는 진정한 해방을 목표로 삼는다.

우리는 가부장적 권력을 재생산하는 권위주의적 질서에 반대하는 세력과 연대한다. 그 반대란 선언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일상 속에 자신의 무의식 속에 내재해 있는 자본주의적, 가부장적 사고들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하고 자기 자신부터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반대'이다. 해방적 연대는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는 형태도 아니며, 획일적인 연대도 아니며 어느 한 점으로 수렴되는 연대도 아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연대, 과정으로서의 연대를 생각한다. 이것은 선언적인 것이 아니다. 이 사회에서 길들여져 온 감수성과 지성과 언어로 미리 규정지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경험적인 것 또한 아니다. 여태까지의 연대는 항상 어느 거대 주체의 동일성으로 다른 모든 것을 흡수해버리는 그러한 '연대'였다.

여성주의적 질서와 다양성에 근거한 연대는 이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할 실험과 창조의 과정이다.



총여학생회,
올림푸스 산을 벗어난
메트로 폴리스의 건설을 향하여¹⁾

제 10대 총여학생회장 김신연경

'총여학생회'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좀 더 특별하게는 연세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학생들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반복되는 학생회 선거에 담으로 얹어지는 한 장의 종이 여성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혹은, 지닐 수 있을까? 더 트집 잡아 보자면 어떤 의미를 지녀야 한다고 강제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들의 의문은 여기에서부터다.

하나. 우리의 일상은 전쟁터다

지금, 여기서, 우리의 일상을 견디어 낸다는 것은 삶의 무게들을 매순간순간마다 짊어진다라는 것이다. 우리가 연세대학교를 다니는 여학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동전 하나 집어넣고 버튼만 누르면 튀어나오는 커피 자판기의 커피처럼 가벼운 듯한 일상은 사실 얼마나 쓰디쓴 것인지. 또한 인스턴트 커피 맛처럼, 친구들과의 수다와 학점 걱정과 남자 친구와의 연애 관계, 이런 저런 모임에서의 일들과 인간 관계들... 그 분석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저 사생활일 뿐인 일상이 쓰디 쓰다고? 사실, 그렇다, 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즐겁지만 한 여자친구들과의 수다가 이런 저런 연유로 알게 된 남자 선우배, 친구들과의 술자리보다 다소 '덜' 심각한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자들은 화장 얘기고 남자 친구 얘기에 남들 홍보기 정신 없다고 그런다. 글썽... 학점? 그래.. 학생이니까 학생의 본분은 공부니까 열심히 해야지

1. 원래 국제적인 대도시를 뜻하는 메트로 폴리스는 그리스어 어원을 따져 보자면 '어머니의 도시'라는 뜻을 지닌 단어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머니의 땅'이라든지 하는 것은 언제나 더 높은 무언가를 전제한 말이었다. 바로 가부장-제우스가 지키는 올림푸스 산의 그늘, 그 아래 어머니의 도시. 우리가 바라는 가부장제 질서 이후의 대안적 질서는 '여성들의 시선'으로 구성된 진정한 어머니의 도시가 되길 꿈꾸며.....

뭐... 그런데,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학점이 좋아야 한다지? 여자들은 학점이 좋아도 취직하기 힘들니까. 근데 남자들은 그런 사정도 모르는지 시험 때 노트 빌려가면서 '여자들은 자기 것만 잘 챙긴다'고 뒤에 서 속삭거리고. 남자 친구! 이 힘든 세상에 나의 반쪽을 얻었다는 중만감에 들뜨기도 하지만, 뭔가 어긋나는 것들이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이런 일상의 모습에 자기의 모습이 조금도 겹쳐지지 않는 이가 과연 우리 중에 있을까? 그저 '살이 어디 만만하겠나'라고 중계 중계 넘기거리는 너무도 석연치 않다. 단지 내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갑갑함을 느껴야 한다면.

우리에게 정치란 너무나 먼 이야기 같다. 뭔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기도 한데, 근엄한 얼굴들은 많이 생각하는데 솔직한 느낌은 나랑 관계없다는 것이다. 갑자기 이야기가 한참 된 것 같기도 하다. 그게 내 갑갑한 일상이랑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지? 여기서 케이트 밀레트가 그녀의 책 '성의 정치학'에서 쓴 말을 옮기는 것은 잘난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도 절절하여 가슴을 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남녀의 친밀한 관계의 장면에서부터 정치적 관계라고 하는 보다 큰 문맥으로 옮기는 것은 대단한 비약이 있다. '성의 정치'라는 용어를 소개함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성관계를 정치적 입장에서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불가피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에 대한 답은 우리가 정치를 어떻게 의미하는 상대적인 협의의 베타적 세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라는 용어는 권력 구조적인 체관계, 즉 한 무리의 인간이 다른 무리의 인간을 지배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즉, 나는, 우리는, 한 무리의 인간인 '여성'이다. 적어도 현실은 그렇다. 어느 한 인간이 '남성'인가 혹은 '여성'인가에 따라 이 복잡 다단한 사회에서 위치 지워짐이 달라진다. 우리는 추상적 중위에서 '인간 일반'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보다 낮은 차원, 즉 일상적 수준에서는 우선적으로 '여성'이거나 '남성'이다. 우리가 정치적 전략을 생각할 때 이것은 주체를 구성하고 담론을 가로지르는(즉, 여성/남성을 성적 주체로서 사회화하고 그들의 욕망과 욕망의 충족 방식을 규정하는) 권력의 작용들이 정치적 논쟁의 중요한 축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상이 전쟁터란 말은 이런 의미다. 일상은, 수많은 의미망들이 교차하면서 상충되는 기호와 담론들이 각축, 경합, 협상하는 장이며 서로 다른 물질기반들이 드러나고 충돌하는 장이기도 하며 계급, 인정, 성적 선호, 성별등 다양한 변수와 주체들이 맞물려 구성되고 생산되는 장이라는 것이다.

둘. 총학생회와 여성운동의 함수관계

대학을 다니는 여성으로서의 우리의 일상이 이토록 정치적이긴대 이 문제에 관한 한 유일하게 들어 본 정치적인 듯한 기구는 '총학생회'밖에 없는 듯 하다. 그러나 그것도 여전히 낯설다. 일단은 '정치'라는 말이 주는 기막히기엔 너무 먼 듯한 느낌 때문에 그러하고 다르게는 '총학생회'가 멀게 느껴지는 느낌과 비슷하다. 아니 그런 면에서는 '총학생회'가 오히려 가깝게 느껴진다. 연세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대표로서 어디나 이름이 빠지지 않는다. 총학생회가 남학생들만의 대표체도 아닌데 왜 총학생회가 굳이 필요한 것일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답은 첫 부분에서 설명한 '성적 불평등'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총학생회는 그 존재 자체가 복지와 정치의 이분법으로 분리되어 사고되는 어느 학생회 질서와는 달리 아주 정치적인 기구라고 볼 수 있다.²⁾ 여기서 '정치적'이라는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기반으로 삼는 정치적 결정과 실천으로서 '페미니즘'은 분명 모든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정치적 실천에 적극 개입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전자는 이데올로기의 재현장치이기 때문이다. 여성은 우리 자신이며 우리의 육체이며 사회적으로 구성된 경험이지만 페미니즘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페미니즘은 논쟁적인 정치적 해석이며 투쟁이지 결코 여성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페미니즘은 흔히 정체성의 정치학이라고 정의 된다. 이때 정체성의 개념은 여성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정치적, 개인적 생존전략과 저항의 책략으로 그것은 또한 비판적인 실천이고 지식의 양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을 '세롭게 쓰는' 것이며 변화하는 개인 상호간의 정치적 상황에 관계해서 세롭게 쓰는 것이다.³⁾ 그러므로 특히 페미니즘은 매일매일이 투쟁의 시간이며 살아가는 삶의 장소가 투쟁의 공간이 되는 일상의 정치학이며, 그 결과 경험과 담론의 경계를 재조정하면서 제도화를 거부해 나간다. 이렇게 볼 때 총학생회는 제도 공간으로서 자치질서들과 차별점을 갖는다고 보다는 학내에서 여성운동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축적하고 담론을 생산해 낸다는 점에서 자치질서들중의 하나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복지의 문제에 관해서도 복지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지'문제를 둘러싼 '일상의 정치'를 제기하고 그 속에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⁴⁾

2. 사실 이 부분은 간단히 논의 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학생회 질서가 건설될 당시의 문제의식이 단지 대사회적인 발언의 필요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일상의 정치화' 테마에서 학생회는 학생 자치 조직으로서 더욱 급변하며 치밀해지는 우리 일상의 억압적 기제들에 저항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글에서 간단히 넘어간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학생 전체를 대표한다'는 대의 명분 때문에 정치성을 지닐 수 없다고 흔히 얘기되는 경향을 짚고자 한 것이며 그에 비해 총학생회는 건설조건과 존속이유 모두 이러한 경향에서 자유롭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3. 김소영, 「시네 페미니즘의 실천과 전망」, 『시네마, 테크노 문화의 푸른 꽃』(열화당, 1996), p.235
4. 가장 대표적인 학내 여학생 복지 문제의 예인 '생리대 자판기'문제만 해도 여성의 육체를 둘러싼 여러 맥락들과 그것을 통제하는 기제들에 대한 사고 없이 말해질 수 없는 것이다.

셋. 학내 여성운동의 흐름들-여/성/주/의 총학생회의 정체성에 관한 역사적 기설

이 부분에서는 먼 총학생회가 기반한 여성운동의 철학에서 연세학내의 여성운동의 최근 흐름들을 짚어 보고자 한다. 이는 우리가 10년의 총학생회 역사속에서 어느 지점에서 단절하는지 어떠한 문제의식들을 이어나가고자 하는지를 더듬어봄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역사적 기설을 간략하게나마 짚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 성정치운동의 시작

95년 성정치 문화제는 그야말로 센세이션 그 자체였다. 그 이전에도 총학생회는 계속 존재해왔지만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오히려 성정치 문화제에서 급격하게 터져 나왔다. 사실 이전의 총학생회의 역할이란 중심운동⁵⁾의 부차적인 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에 기대되는 역할, 그 정도였다. 그만큼 독자적인 사상적 기반과 활동 메커니즘이 부재했다고 볼 수 있다. 성정치 문화제는 그 후 급격하게 다른 학교에도 영향을 미쳐 여성운동의 여러 가지 단위들, 예를 들어 위원회, 소모임, 연대모임들을 활성화시키게 된다. 여기서 제기되는 하나의 문제-왜 이러한 문제제기가 당시 총학생회 성정치국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을까? 당시 성정치국을 이루고 있던 구성원들의 문제의식은 제쳐두고서라도 최근의 학생운동 조직들은 너무도 많은 문제에 대해 다 다룰려고 하는 욕심을 보인다. 이는 단지 욕심 차원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시간과 공간을 가지는 모순들에 대해 단일한 적대선을 그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폭력적이다. 연세 내에서 성정치 운동에 대해 발언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곧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독자적인 모임을 꾸리기 시작한다.

5. 반 여러 맥락들과 그것을 통제하는 기제들에 대한 사고 없이 말해질 수 없는 것이다.
5.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조국통일', '노동해방'이라는 핵심적 가치가 설명해 주듯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말엽 현재까지 이것은 학생운동의 중심적인 사상이다. 사회구조의 무순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고 있는 이러한 사상적 기반은 학생운동의 절대결명의 진리로 위치하게 되고, 학생운동은 이러한 기반위에서 대사회적인 투쟁들을 벌여내고 있다. 그러한 투쟁의 역사과정은 학생운동의이념으로써 '통일'과 '노동'이라는 단일한 명제를 채택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학생운동의 사상적 기반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여타의 다른 운동의 영역은 통일과 노동이라는 운동에 종속되거나 부차적인(주변적인)운동으로 취급받게 되었다. 사실상 식민지 조국의 완전한 자주화, 자주적 평화통일이 실현되어야만 여성해방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이나 여성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오십보 백보 다. 존재하는 다양한 모순을 단일한 모순으로 치환시켜버리는 과정속에서 여성운동은 가부장제 사회의 여성과 마찬가지로 운동에 있어서도 주변적으로 위치지워져 온 것이다.

2) 여성자치연합 - 공존하는 다양성, 여성적 연대의 가능성

연세 내에서도 다양한 운동단위들의 활성화는 발전을 거듭하면서 97년 여성자치연합이란 이름으로 조직체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부차적인 운동단위로 끌려다니던 총여학생회에서 무언가를 하기는 힘들겠다는 판단과 함께 학생회 질서로 포괄되지 않는 급진적인 운동단위들과의 본격적인 연대체였다는 점에서 여성자치연합은 큰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이때부터 자생적이고 독자적인 활동들의 움직임이 활성화되면서 나름대로의 활동 메커니즘을 구축해 나가게 되었다. 제 1회 여성제는 이들이 남긴 가장 큰 성과물이었으며 학생회 질서들이 '대표제'라는 애매모호한 대의 명분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학내 직접민주주의의 실험에 관한 단초들과 경험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 역시 평가받을 만한 점이다. 이후 기독교 여성세력이 총여학생회 선거에 출마하게 되자 입장과 비판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학내에서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에 관한 불꽃튀는 논쟁 또한 야기되었다. 이 부분에 관한 한 여러 평가들이 엇갈린다. 분명한 것은 이제 하나-여성운동에 대한 논쟁이 학내에서도 이제 본격화되었으며 이는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

3) 여성주의 총여학생회

현 여/성/주/의 총여학생회는 이런 여성운동의 독자적인 활성화의 맥락 속에 분명히 위치한다. 총학생회를 위시한 각 단대 학생회 단위에서 여성문제를 얼마만큼이나 풀어낼 수 있는가? 사회적으로 여성의 입상이 비정치적이고 개인적으로 읽히는 공/사의 논리 속에서 공적이고 전통적인 정치의 영역으로 보이는 '학생회' 구조에 여성들은 단지 정치에 무관심한 단일한 주체로 상정된다. 총여학생회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성운동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공적인 통로이다. 물론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특히 자치 질서의 활성화는 총여학생회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는 '서로 다른 목소리들 모여봐라'식의 탈정치적이고 상대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 자체가 여성운동 특유의 정치성인 것이다. 한 사람의 여성들이라고 하지만 우리들은 또 얼마나 다른 각각의 개인들인가. 우리들의 다양성이 가부장제 하에서 멋대로 선 그 어지고 유형화되었던 것을 이제는 그저 넘기지 않으려 한다. 다른 느낌의 개인들이 모여 각자의 방식을 표현하고 조절해 가며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것. '총여학생회'는 이러한 자치 질서를 위에 서 있지 않을 것이다. 물론 '학생회' 구조 안에 있다는, 다른 자치 질서들과 비교하여 유리한 점이 있다. 바로 학교와의 통로나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와의 통로에서 그러하다. 지금은 단일한 이 통로를 일단은 '총여학생회'에서 여러 갈래로 뻗어 나갈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이를하여 '여성주의 권력'의 확산이다. '여성주의'라는 말을 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은 여성들 특유의 관계 맺는 방식이다. 블랙홀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중심이 아닌, 지도자가 지배자가 되지 않는, 느슨한 중심과 주변의 연대. 이쯤 되면 모두가 평등한 이상주의 사회를 그리는 거냐는 힐난이 터져나

올 법하다. 그런 이상주의 사회를 우리는 도그마적으로 상정해 놓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실험 속에서 상상해 보는 것이다.

'상상력이 세상을 바꾼다'를 갇은 광고 킥만은 아니다. 구체적인 우리의 일상속에서 일상의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속에서 실이 보태지고 피가 더어져 마침내 숨쉬는 생명력을 갖게 될 상상력을 위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나의 삶을 바꾸겠다'는 용기일 것이다. 다시 한 번 페미니즘은, 우리 자신이며 우리의 육체이며 사회적으로 구성된 경험인 '여성'의 논쟁적인 정치적 실천이다.



총여학생회 예산에 관한 논의에 앞선

총여학생회 재정상황과 결산보고

현재 총여학생회의 예산은 최소 2천 5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는 작년 총여 배당 학회비 이월금과 여학생처 이월금, 각종 이월금, 전년 대비(4.5%) 총여학생회 배당금액(천 5백), 여학생처 지원금(2백5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98년도 총여학생회 배당금액이 어느 정도 늘어났다 하더라도 총 3천만원을 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치단체와 지속적 재정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총여 예산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총여학생회 예산을 크게 다음과 같이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총여 기본 운영비(구독료, 통신비, 물품비, MT비...)와 행사 기획, 진행비(3.8, 자치단체 총회, 미인대회, 여성제...), 주요 총여단체 운영비(생활도서관, 두입술 편집위원회, 어울림터, 성폭력 자치규약 제정위), 지원금(자치단체 지원금, 외부 지원금), 선거비 및 이월금 등입니다.

우선 총여 기본 운영비는 1,2,3월 합산 80만원 정도로 학기 초 과다 지출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매 월 약 20만원 정도를 예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 X 8 = 약 160만원)

행사 기획, 진행비는 행사 기획방식에 따라 지원금과 동시 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총여가 주관, 주최하는 행사에는 지원금 형식이 아닌 직접 집행의 방식이 됩니다.

오리엔테이션같은 문화 행사는 백만원단위, 3.8세계 여성의 날과 같은 행사는 십만원단위의 액수가 소요됩니다. 4월이후 총여가 계획한 행사에는 자치단체 총회(4), 미인대회(5), 성폭력 선포식(5), 여성제(10), 취업 간담회(2학기중) 등이 있으며 행사 아이টে에 따라 드는 액수가 들쭉날쭉인 관계로 아직 정확한 금액을 책정해 놓고 있지 않지만 최소 500-600만원 은 들거라 예상됩니다. 갖가지 문화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질 여성제는 현재로서는 가능할 수 없는 상당한 액수가 들 것같은데요.... 참고로 문화행사와 간담회로 꾸며진 오리엔테이션은 140여만원이 들었습니다.

주요 총여단체 운영비 는 총여 집행부와 자치단체의 성격을 동시에 띤 단체 및 공간의 운영비 인데요. 현재는 생활 도서관, 어울림터(학관 3층 여학생휴게실의 새이름), 두입술 편집위, 성폭력 자치규약제정위가 포함되어 있으며 총여와 함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주요한 지원을 받습니다. 앞으로 독립될 가능성이 상당한 단체들이죠.

생활 도서관은 최초 도서구입비에 이미 70만원이 들었구요. 앞으로 상당양의 책을 더 구비할 것 같습니다. 기본 구입이 어느정도 완료되면 매월 일정금액의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어울림터는 자치단체의 의견이 더 수렴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우선 여성문화실현 모임 "움"에서 일상적 주기적 문화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부 인테리어 비용과 행사 진행금이 소요됩니다. 내부 인테리어 비용은 WHERE. R. U 이월금(30만원)으로 사용하기로 총여집부회의에서 결정이 났으며 행사 진행금은 매월 일정금 지원 형식(10-15/월 X 7개월 = 70-100만원)으로 됩니다.

두입술 편집위는 최대한의 스폰을 댔 이후 나머지 부족한 비용을 총여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IMF타격으로 스폰으로 메꿀 수 있는 금액이 150만원이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200-300만원 정도의 지원이 매회 불가피합니다. (200-300 X 3회 = 600-900만원)

성폭력 자치규약제정위는 주요 활동마다 지원하는 형식이 될 것 같은데요. 4월 설문지 제작에 17만원 정도가 들었고 활동 사항에 따라 지원됩니다.

선거비와 이월금은 각 200, 200만원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선거 시 각 선본에서 지출하는 막대한 금액을 감안한다면 총여에서 일정 정도 지원함이 마땅합니다. 또한 이월금이 전혀 없을 경우 학회비가 집행되는 4,5월 까지 학생회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논의 해야 할 자치단체 지원금 항목이 남았군요.

책정 방식과 액수, 배분방식과 액수, 그리고 이월의 문제까지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기본적으로 책정된 금액을 제하면 최소한의 총여 예산 2천 5백만원에서 남는 액수는 약 200만원정도입니다. 이 액수를 자치단체 지원금으로 돌린다고 할 경우 이전의 총여에서 지원했던 금액보다도 모자란 수치이며 작년 총여 부제 시 자치단체들이 받았던 액수보다도 적습니다. 최소 500만원 이상의 재정이 배당이 돼있어야 각 단체들에게 여유로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총학생회와의 총여학생회 예산 논의가 끝나봐야 재정 상태가 확정될 텐데요. 총여가 요구하는 6.2%안이 전부 받아들일 때는 6백만원 정도가 증가하구요. 총여가 고려한 마지노선 5.53%만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300만원정도가 증가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1달

총여학생회 사무국

여간의 논의에 있어 총학의 5%안과 총여의 안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총여는 5.53%까지는 받아내기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자치단체들의 지지를 기대합니다.(총여 학생회 예산증가 요구 문서 참조)

따라서 최소 5.53%까지를 받아낸다고 했을 때 자치단체 지원 책정액은 500만원 이상으로 총여예산의 18%-2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액수는 자치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했을 때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요. 총여 자원으로도 모자란 부분은 총학생회에서 시행중인 예산자치제를 활용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중운위에서 결정된 바에 따르면 특별공동예산 차액 약 9백 만원이 예산자치제에 쓰인다고 합니다.

자치단체에 책정된 총여에 관한 글은 이쯤 마치기로 하구요. 오늘 총회에서 각 자치단체에 배정, 지원하는 부분과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월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총여학생회 예산 증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때 총여 예산을 최소 5%까지 올리겠다는 여성주의 선본의 공약을 기억하시는지요.

총여학생회가 그 동안 받아왔던 총 학생회비의 4.5%라는 퍼센트는 90년대 이후 변지 않았던 부동의 수치였습니다.(그나마 작년 총여의 부재 시에는 3.6%를 배정받았지요.)

여학생 수가 90년 이후로는 급격히 증가하여 약 23%라는 증가율을 보였고 절대 수치로는 약 1400명(총 정원은 1200정도 늘었군요)이 늘어났습니다.(참고자료 참조) 이러한 수적 증가는 당연히 총여학생회 배당액에 반영이 되어야 마땅할 터인데 작년 총여의 부재, 제작년 총여의 부실로 말미암아 배당 과정상에 전혀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주/의 제 10대 총여학생회는 명백한 여학생 증가율과 더불어 95년 이후의 여성운동의 비약적인 질적 발전을 감안한 약 6.2%를 총학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인 참조)

98년도 총여학생회 예산책정에 대한 총여학생회 입장 및 요구안

1. 현재 연세 내에서 여성운동은 총여학생회를 비롯, 각 자치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여 내면서 독자적인 위상과 철학, 기반을 잡아가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활동적 성장들을 총학생회-단대학생회 라인에 전적으로 담보하지 못한다.

▶ 연 사회 성적 불평등의 문제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본다는 데 동의한다면 예산 증가 요구를 단순히 여학생 비율증가로 인한 부재 정도로 인식하여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바란다.

▶ 총학생회는 여성관련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안이 나와있지 않다는 것을 시인하고 총여학생회 활동에 진정한 연대의 모습을 보여주게 바란다.

2. 여학생 비율 증가와 더불어 여학우들의 요구도 높아 가는 것은 당연하다.

▶ 따라서 94년 이후 22.78%의 여학생 증가율은 반드시 예산 책정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이 증가율이 반영된 5.53%는 최소의 수지임을 받아들여야겠다.

3. 위에서 설명했듯 수지단순대비로도 총여학생회는 최소 5.53%의 예산을 책정 받아야 하며 단순히 수치로 볼 수 없는 여성운동의 성장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전체예산 6.2%책정을 주장한다.

참고 자료-각 연도별 1학기 신촌 캠퍼스 재학 여학생 수 및 비율(전체 재학생 대비)

	90년	92년	94년	95년	96년	97년
여학생수/전체	4235/16408	4209/16548	4728/17642	5030/18328	5262/17914	5612/17653
백분율	25.8%	25.4%	26.8%	27.4%	29.4%	31.8%

(각 연도별 교무처 학적과 학생명부 中)

학내 여성전문언론의 필요성과 편집위원회의 위상

왜 학내 여성전문언론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에 앞서, 그동안 여성언론이 없었던가? 하는 의문이 생기지는 않으십니까? 각종 여성지와 'If'지가 있고, 지금은 중단된 상태이나 학내에서도 연세여성이 있었지요. 근데 왜 새삼 처음있는 일인양 학내 여성전문언론지를 창간한다느니, 독립한다고 하는지 이상할 것입니다. 마이웨딩, 쉐시, 칼라 동등의 여성잡지들이 전문언론으로서 여성운동에 이바지한다고 생각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적이 되면 되었지...) 새로운 포맷으로 시작한 "If"지 또한 그 대상독자의 광범위함과 간과할 수 없는 상업성에 의한 한계를 무시할 수 없겠지요. 연세여성을 예기해 볼까요? 발간이 중단된 연세여성의 현 상황이 그 한계와 열악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총여의 주체가 바뀔 때마다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독자적인 역량 또한 축적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이 기관지로서의 연세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근래 2-3년간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여성문제"에 대한 논의와 자치단체들의 활성화는 그동안 암울했던 학내의 여성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밝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다양하게 펼쳐졌던 여성계와 문화계는 그 논의를 보다 활발하고 정교하게 발전시키지 못하고 섣불리 섰던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자치단체들의 노력 또한 기존의 구도 안에서 새로운 권력으로 확산시키기에는 아직 미약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언론에 의해 한 폭지씩 담아지는 여성문제가 아닌, 독자적인 여성의 목소리로 학내 여성운동의 움직임을 담아내고 이론화할 여성전문언론에 대한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

성의 목소리는 가려져 왔다고 말해줍니다. 기존의 남성적인 담론구조 안에서 여성들은 아예 발언할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거나 생존전략으로서 그 구조 안에 편입될 수밖에 없었고, 타언론들에서 여성문제가 다루어지는 방식도 구색맞추기에 불과할뿐 진정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여성문제가 어느 특정한 한 분야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시비걸기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볼 때 학내의 문제들에 대해, 또한 무심코 지나치는 문제들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문제들에 대해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지난 11월, 연세여성의 독립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현재의 총여가 세워지면서 지금의 편집위원회가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시작 단계로서 총여와의 연계성을 무시할 수 없지만 이전의 연세여성이 기관지로서의 한계를 가졌던 것을 절감하며 독립적인 여성언론으로서 기능하려고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현재 편집위원회는 창간준비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연세여성은 신문형식이었지요. 신문은 현장감있게 사안들을 담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회적인 단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편집위는 교지형식을 지향합니다. 단순히 현재 학내 여성운동의 흐름을 담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성주의적인 문제의식의 정교화와 담론화를 통해 여성주의적 권력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지형식을 통해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성운동에 있어서 크게 이슈화되는 문제들을 다루어야 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들만을 다루는 것이 얼마나 진부한 것인가를 인지하며 자칫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어 버리는 일상의 문제들 또한 심도있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남녀 평등' '여성 해방'이라는 식상한 구호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을 여성적 시각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 : 두입술

(다양하게 열려 있고 유동적인 여성 정체성을 강조하며 하나이면서 동시에 복수이며, 열림과 닫힘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나와 너, 우리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두입술" 편집위원회

98년의 일정

- ▶ 창간준비호 발행 : 5월 중순
- ▶ 신입부원 모집과 체계정비 : 준비호 발행이후 신입부원을 모집하고 창간호를 준비하면서 편집회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수준높은 작업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 창간호 발행 : 9월 초, 독립적 언론으로 활동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정적 독립에 주력할 것입니다.
- ▶ 2호 발행 : 12월 말, 2호 발행과 함께 편집위원회의 독립을 완성할 것입니다.

창간준비호 기획

- ▶ 목표 : 앞으로의 활동을 위해 역량을 축적하고 편집위를 널리 알리는 것이 급선무이겠지요.

▶ 내용 : 특집 1 - 학내 여성전문언론지의 필요성

- a. 왜 우리는 새로운 여성전문잡지를 만들려고 하는가.
- b. 여성잡지들, 무엇이 문제인가.
- c. 페미니즘 담론의 실천과 여성적 글쓰기

특집 2 - 학내 여성운동의 흐름을 진단하며

- a. 자치와 연대, 쉽고도 어려운 이야기
- b. 자치단체들의 소개글
- c. 대담-자치단체 총회

기획 1 - 연애

- a. 학내에서의 연애강박증/기피증
- b. 페미니스트로서 사랑하기
- c. 이데올로기로서의 사랑
- d. 다양한 관계의 가능성은?

기획 2 - 공포영화와 여성-에일리언 다르게 보기

기타글 - 페미니즘 캠프를 다녀와서

- 인터뷰 : 극단 '마녀'와 여성문화예술기획단
- 새내기 여성학 커리
- 광고

'두 입술'은 문화지와 이론지의 성격을 겸비한 전문 잡지를 지향합니다. 재밌게 읽히면서도 가볍지 않은, 이후에 다시 한 번 펼쳐볼 가치를 지니는 전문 잡지를 지향합니다. 우리는 '두 입술'을 통해 여성주의적인 시각으로 일상의 문제들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담론화 함으로써 우리의 문제의식을 보다 확산시키고 학내 여성운동의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려합니다.

총여학생회 자료학술국

1. 여성운동 확장의 역사, 그러나...

학내에서 여성운동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켜게 된 가장 큰 계기는 95년도의 성정치문화제라고 생각된다. 물론 그 이전에도 총여학생회는 존재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여성운동을 수행하기는 했지만 그 당시의 여성운동은 학생운동의 큰 흐름들 중에 하나의 분과로서의 의미 밖에 지니고 있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성정치문화제를 여성운동의 새로운 촉발점으로 평가하는 것은 여성운동이 다른 운동의 종속적인 운동이나 하부적인 운동으로 여겨져 왔던 기존의 사고들에 파장을 일으키며 여성운동이 독자적으로 제기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음과 동시에 그러한 문제의식들을 밖으로 표출한 최초의 계기였기 때문이다.

성정치문화제를 통해 촉발된 이러한 문제의식은 여성운동이나 여성학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면서 여러 소모임이나 자치단체들을 만들어내는 계폭제가 되었다. 이런 여성운동은 여성의 일상과 여성의 경험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가부장적인 권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단순히 사적인 공간으로 치부되어 버리는 여성의 일상과 경험들을 어떤 식으로 정치화할 것인가에 많은 부분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한 여성운동은 여성의 경험이나 일상에서의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문화제라는 명식을 통해 표출되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학내에서 여성운동에 대한 논의들을 확장시키고 그 기반을 넓히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하지만 이제까지 진행되어 왔던 방식으로 여성의 일상이나 경험들에 관한 문제제기에만 그치거나, 그것들을 반복되는 문화제 명식으로 표출해내는 것만으로 더 이상의 여성운동의 확장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여성운동이 제기된 배경이나 여성운동의 흐름 안에서 여성의 경험이나 일상의 문제는 많은 비중

6) 물론 이러한 결론은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간과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95년에 성정치문화제가 열릴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이전의 운동들이 기반으로 삼고 있었던 여러 가지 외부적인 상황의 변화들을 반영하는 것이었다.(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여기에서 길게 논의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즉, 여성운동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외부적인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둘째, 그 당시에 성정치문화제를 개최했던 주체는 총학생회안에 포함된 성정치국이었고 이것 자체가 앞에서 논의한 총여학생회가 다른 운동의 하부 조직으로서 사고되었던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평가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를 삼는 것은 그 과정 상에서의 문제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운동의 내용성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주지하기 바란다. 셋째, 성정치문화제는 그 당시에 많은 논쟁과 비판의 초점이 되었었다. 이 글에서 성정치문화제를 언급하는 것은 그 논쟁과 비판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이에 대한 평가는 다른 장에서 더 자세하고 치밀하게 진행되었다고 본다), 성정치문화제가 이후에 학내에 끼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견과할 수 없는 것은 여성의 경험에 대한 문제제기가 기본적으로 사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가부장적인 권력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한다면 이러한 가부장제에 대한 치밀한 비판이나 분석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는다면 문제의식은 금세 고갈될 수밖에 없다. 여성운동이 일상의 정치화, 정체성의 정치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면, 그 정치를 어떤 전략으로 수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그러한 이론적 작업이 수반될 때 여성운동의 치밀한 전략의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그 동안에도 학회나 소모임에서 세미나라는 형식으로 여성학에 관한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졌긴 했지만 그러한 논의들이 단순히 여성학의 다양한 분파들에 대한 이해에만 머물렀고 그러한 논의들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음으로써 소통되거나 이론적 논의를 공유할 만한 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여성운동의 기반이 많이 확장된 지금, 여성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이론적인 심화의 작업들이 진행되어야 할 때이다.

2. 여성운동의 질적인 확산을 위하여

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자료학술부는 여성운동의 질적인 확산, 즉 여성운동의 이론들을 서로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그 안에서 여성운동의 이론들을 심화시키는 작업들을 기초로 삼고 있다. 여성학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여성학 세미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성학에 관한 도서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완성된 세미나 커리가 존재하지도 않고 여성학 책에 관한 공통된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세미나를 할 때마다 커리를 매번 다시 짜야 하고, 책도 일일이 다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나와있는 책에 관한 정보나 세미나 커리들을 모으는 작업들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자료학술부는 이제까지 나와있던 여성학과 관련된 도서나 자료들, 세미나 커리들을 모아서 정리하고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여성학에 대한 작은 도서관을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도서관은 기존의 도서관처럼 단순히 책들을 진열해 놓고 자기가 필요한 책들을 대출해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도서나 자료에 관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정보 네트워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여성운동의 한 주제에 대해 공동으로 논의해 볼 수 있는 학술제나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공동으로 소통하고 그 논의들을 확산시키는 장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여성학의 이론적 확산의 과정은 기나긴 여정일 수밖에 없다. 이 기나긴 여정을 올만에 완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막내 여성운동의 역사에서 이제까지 이론적 공유의 장이나 소통의 장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장을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 기나긴 여정의 첫걸음일 수 있다. 그 기나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으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그 첫걸음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1. 자료정리 & 데이터 베이스 구축

그간 여성운동의 과정에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져왔고 그와 함께 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운동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서는 그러한 자료들과 성과물들이 축적되고 공유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자료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① 기존 자료의 index 작업

(성폭력, 포르노, 세계여성의 날, 문화제, 여성노동, 역대 총여 선거자료...)

② 잡지 목차 정리

(여성과 사회, if, 사무직 여성 등 전문 여성 잡지/계간지의 여성관련 논문들 모음)

2. 여성학 생활도서관

여성학 세미나를 해보려고 여성학 커리를 찾아 다니거나 여성학과 관련된 리포트를 쓰기 위해 도서관의 책들을 뒤지다보면 도서관이나 대형서점에서 여성학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그 많은 책들중에서 자신의 관심에 충분히 들어맞는 다거나 자신 안에 있는 문제의식을 발전시켜줄 수 있는 책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음을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불만족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정보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기 위해 생활도서관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여학생회 생활도서관은 여성주의 이론의 확산과 여성주의적 담론의 공유와 소통, 생산의 장으로서 위치하고자 합니다.

① 논지방, 이과대 생활도서관과 연계

② 도서관의 여성학 책들에 대한 체크, 새로운 책 구입 요청

③ 도서관 여성학 분류체계에 대한 실사와 문제제기

3. 여성학 커리 뱅크 구축

최근 몇 년간 여성 문제나 여성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성학 공부를 위한 소모임이나, 여성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풀어내고자 하는 자치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개인적으로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소모임/자치단체/개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동시에 그들 간의 정보 교류와 그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여성학 커리 뱅크를 제안합니다. 이는 단순히 모아진 정보를 일방적으로 나누어 주기 위함이 아니라 상호간 정보제공과 공유를 통한 자료의 축적과 소통의 가능성을 연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 ①소모임/자치단체들에서 이루어진 세미나 커리 모으기
- ②여성학 관련 수업의 강의 계획서 모으기

4. 학술제 또는 공동 세미나

여성학/여성운동에 대한 논의들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그를 통해 여성학 담론을 형성·확산시킬 수 있는 장으로서 학술제나 자치단체간 공동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는 못했음)

0. 들어가며

연대 사업국이라 하면 흔히들 매우 경직된 조직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어감이 딱딱하기도 하겠거니와 기존의 연대 사업에 대한 선입관이 뇌리에 박혀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선입관을 버리고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자. 다른 여성운동관련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즐겁게 일하는 연대 사업국은 총여의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다. 자, 이제 올 해 연사국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사고를 펼칠지...

1. 여성주의자들의 급진적 연대 - 여성주의적 질서를 실험한다!

이전 학생회들은 학생회의 질서로 편입되지 않은 자치적인 움직임을 배제하거나 그러한 흐름을 포섭하는 속에서 학생회로의 권력집중방식의 사업들을 진행시켰다. 그 속에서 학생회는 그들이 비판하는 적의 모습을 달아가게 되었고 학생회의 권력적인 모습은 학우들과의 벽을 단단하게 만들어 갔다. 이러한 문제는 소위 운동권이란 비권이란 관계없이 학생회 구조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학생회 주체들의 모습 속에서 가중되어 왔다.

여성주의는 학생회로의 권력집중을 비판한다. 학생회의 체계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닫힌 구조에 반기를 드는 것이다. 여성주의적 질서는 위로부터의 권력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권력을 상상한다. 또한 일원적인 동일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권력이 아닌 다원적인 주체들의 차이로부터 시작하는 권력을 실험한다. 차이의 정치, 이것이 다양한 모순의 중층결정인 주체가 극복을 위해 달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

여성적인 연대는 이러한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다. 학생회 중심으로 진행되어지는 일련의 사업이 아닌 다양한 모순을 다른 방식으로 느끼는 주체들의 연대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에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대표성을 인정받은 학생회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운동을 펼쳐내고 있는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실험이 여성주의자들의 급진적 연대인 것이다. 연사국은 여성주의적 질서의 실험을 통해 우리가 주장하는 여성주의를 실물화시켜내는 일을 해 나갈 것이다.

2. 98년을 바라보며 시작한다!

출어졌던 여성운동이 96년부터 새로운 질서를 상상하며 움직이기 시작한 이래로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단순히 유행과 같은 새로운 질서가 아닌 현실에 기반하고 있으며 현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질서가 되는 과정 속에 그동안의 시행착오들은 그 질서를 단단하게 만드는 빗물같은 역할을 했다. 98년 현재 학내 여성운동의 그물망으로 자리잡아가는 것으로 여성단위대표자회의(준)과 여성연대회의가 있으며, 서로가 상호보완하면서 심적, 물리적인 기반을 확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 상태이다.

학내로 시선을 돌려보자. 작년 여성자치연합의 활동으로 연대 내에서 여성관련 자치단체들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새롭게 여성운동을 시작하려고 오인 단체들이 올 해 준비를 시작한 반면에 여성자치단체들의

총여학생회 연대사업국

공간적, 재정적 기반의 부족으로 인해 각 단체들의 세네기 맞이가 어려움을 겪고, 나름의 특화된 방향성을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여성운동 내부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양분적인 상황이다.

또한 학생사회에서 진보운동세력의 총체적인 난국은 제6기 한총련 건설을 기점으로 그 모습을 더욱더 확실해지면서 진보적인 운동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운동혁신의 주체가 올 한해동안 뚜렷한 모습으로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학원내의 진보적 발자취에 대한 이야기는 한낱 전설에 불과한 상황이 오리라는 것은 현재를 머무러보아도 엄한(?) 소리는 아닐 것이다.

올 한해 학내의 동향을 파악하는 속에서 연사국은 98년도 기초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각 학교별 연대 활동과 학내 자치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을 적극 고안하면서, 학내 여성운동의 쟁점 뿐 아니라 학생운동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성폭력 자치규약제정운동에 중심적으로 참여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질서를 제시, 실행하면서 현재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하는 학생사회에 여성주의적 관점을 선전해내는 것이 98년 연사국이 학내에서 또한 학외에서 해야 하는 일일 것이다.

외부 여성 사회단체와의 연계는 먼저 정보수집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또한 외부의 흐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총여와의 합의를 통해 잡아내어 여성주의적인 입장에서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총여와의 합의란 정보의 공유를 통해 우리의 관점을 내용화하여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선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3. 구체적인 사업계획

각 캠페인 상황과 정보, 학내 자치단체들의 정보 뿐 아니라 사회단체들의 상황, 정보를 수집하고 그 때의 정세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현재 연사국의 1인이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에 참여하면서 다른 학교와 성폭력 자치규약제정운동에 대한 연대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연대 내에서는 성폭력자치규약제정위원회(가칭)를 만들어 학적 제정운동을 지속해나갈 것을 생각하고 있다. 올 한해 대학내 여성운동의 중요한 과제를 성폭력 자치규약제정운동으로 바라보면서 연사국은 주도적으로 자치규약제정운동에 참여할 것이다.

- 3월 ▶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 참여
- ▶ 외부 여성단체 정보 수집
- 4월 ▶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자치규약제정'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 ▶ 성폭력자치규약 제정위원회(가칭) 준비모임
- ▶ 18개 대학 공동으로 실시하는 성폭력과 자치규약제정에 관한 설문조사
- 5월 ▶ 성폭력 자치규약 제정운동 선포식
- ▶ 대대적 시가 자치규약제정운동 관련 행사마련
- 6월 ▶ 2학기 성폭력 자치규약제정운동 준비



이과대 여학생회

이과대 여학생회는요...

개강후 어느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거와 당선. 어렵게 꾸려진 여학생회입니다.

갈수록 여학생들의 비중은 높아가지만, 다음 대에는 누가 나설까? 누가 함께 일해줄까? 고민 하게 되는 것이 단대 여학생회의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비록 소수이지만, 올 한해 열심히 뛰어다니려 합니다.

먼저 여·회인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과대 여학생회실에서 상주하는 사람은 3-4명정도, 그 밖의 소수의 사람들이 여·회를 오고 갑니다.

먼저 여학생회장님은 96' (화학전공) 김희경입니다. 함께 일 할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여학생회에서 "여학생회는 누군가는 책임져야한다." 라는 생각 하나로 선거에 나선 분이십니다. <여학생회장님으로서 품위가 느껴지시죠?> 다음으로 기획국을 맡게된 96'(수학전공) 김은실, 회장님이 없으실시 임무 대행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과대 여회에서 가장 아리따운 분이시죠! (^.^) 문학국을 열어 가시는 분은 96'(생화학전공) 김준옥, 뒤늦게(다른 이들에 비해) 9대여학생회에 합류하신 분입니다. 말하자면 올해에 새로 일하게된 사람이죠! 저는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함께 일 할 수 있게 되는데 무척이나 감동 받았답니다. 그리고 여성학소모임 담당 97' 김지혜 이분은 지난 겨울 함께 여성학 소모임을 한 후 이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

또 하나의 시작! 다가서는 마음!

- 오 다가서는 여나. 세네기와 함께 합니다.
- 오 다가서는 둘. 여성문제를 고민합니다.
- 오 다가서는 셋. 생활 속에서 사회를 체험합니다.
- 오 다가서는 넷. 진로를 함께 고민합니다.
- 오 다가서는 다섯. 학우들과 함께 합니다.

고 있는 저는 여회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박지영입니다. 97이지요. 이밖에도 여학생회 탁아분과인 아히누리 쟁으로 97'조민재군과 다른 아히누리인들, 또 요즈음 새로이 여회방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98세대기들이 있습니다.

● 오늘까지 이과대 여학생회가 만들어진 역사는...

이과대 여학생회는 지금까지 8대의 역사를 일구어 왔습니다. 1대의 건설 준비위원회 기간 1년과, 95년 준비위원회로 있던 1년을 합하면 11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셈이죠. 그럼 그 연혁을 볼까요?

연 혁

- 88년 - 건국준비 위원회
- 89년 (1대) - 각과와의 연결 추진, 신문 발행
- 90년 (2대) - 여학우들의 모임 활성화, 여농반 지원, 진로상담회 개최
- 91년 (3대) - 이과 사업을 이어받고 여휴에 도서 비치,
그밖에 총여와 사업 연계
- 92년 (4대) - 공청회 개최, 기지촌 활동
- 93년 (5대) - 여학우 한마당, 동활, 기활, 진로상담회 개최
- 94년 (6대) - 여휴를 이도 앞으로 이전, 여성영화 상영, 기활, 농활
- 95년 - 준비위원회 활동
- 96년 (7대) - 생도 활동, 포스터 문화제, 여농반, 여회 소식지 발간
- 97년 (8대) - 여회 총회개최, 여성학 소모임, 탁아활동, 기활, 진로상담회
- 98년 - 9대 여학생회 출범

"어~휴 짧지만 기인 역사 아닌가요?"

그동안 여학생회에는 많은 선배님들이 거쳐갔습니다. 아니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할 수 있겠군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옆에서 조언을 아끼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이 만드시고, 지금 우리들이 계속하고있는 사업들, 생활 도서관, 여학생 휴게실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더 우리의 할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 올 한해 이과대여학생회의 사업은...

우 생활도서관은 7대에 만들어 졌습니다. 그 이전 여학생회실에 있던 책들을 이과대 도서관내에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올 해 새로이 60여권의 책을 구입했고, 추천도서는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생도 지킴이들과 독서 토론모임도 만들 계획입니다. 생도 담당은 문화국 담당이신 김준옥님이신데 지금은 생도 회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 여학생 휴게실은 이과대 여학우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여휴는 평일 저녁 6시 이후에는 세미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휴는 여학생회에서 관리하고 있긴 하지만 여학생회의 공간이 아니라, 여학우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사업이라기 보다는 잘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휴담당자는 기획국장인 김은실님 이시고, 여휴내에 알림판을 마련하여 여론수렴 및 정보교환장소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우 여성학소모임은 지난 겨울방학때 예비 모임을 가졌고, 지금은 여성학을 함께 공부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4월 둘째주 에 첫 모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우 여학생회 탁아분과인 아히누리에서는 성가정 입양원(미혼모의 자녀를 입양시키는 기관)과 꾸러기 방으로 자활을 나가고 있습니다. 아히누리는 이번에 98세대기들이 많이 가입하여, 저 개인적으로는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 5월에는 기활을 갈 예정에 있습니다. 기활 담당자는 김희경님 이십니다. 기활은 학기중에는 하루기활 형식으로 메달, 또는 수시로 신청자를 받아 함께 갈 계획입니다. 방학중에는 새움터나 두레방을 방문하여 일주일 정도 그곳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새움터분들과 연계하여 기지촌 언니들이 만든 허브 염서와, 초를 축제기간 즈음하여 판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연락중인데 기지촌 언니들에게 전업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 또하나 계획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진로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과대의 특성을 살려 이학인들이 관심을 갖고있는 분야에서 현실적 제약이 큰 취업 문제를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함께 고민하려 합니다.

우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에 참석하여 할머니들과 함께 정신대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강후에는 수업시간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소수이더라도 될 수 있는한 참석하려 합니다.

우 이 밖에 6월에는 여농반이 꾸러져 농활준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것 저것 이렇게 두서없이 소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일들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듯 늘 있는 일들이고, 우리가 안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진행되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누군가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과대 여학생회의 문제점 또는 어려움은-모든 단대 여학생회, 학생회들의 공통적인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학우들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좀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선전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평상시 학우들의 열렬한 관심이 비록 적더라도 어려움, 힘든 일이 있을 때, 여학생회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 안을 수 있는 여학생회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여학생회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힘드시죠? 그러나 함께 일하고, 함께 생각해 주는 동지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과대 여학생회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조언과, 비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법대 성연구모임 동그레지는 온쪽이

“왜 동그레지는 온쪽이나구요?”

여자는 굳이 남자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완전한 인격체—온쪽이—이며

꿈임없는 자아발전을 통해

더욱더 동그레질 뿐이죠.”

길들여짐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이 일상 속에서 겪는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그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보려 노력하는 작은 모임입니다. 왜 동그레지는 온쪽이나구요?

우리는 흔히 남자, 여자 반쪽이 모여 완전한 하나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 여자는 좋은 남자를 만나 한 가정을 이루어 아내와 어머니가 됨으로써 비로소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됨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었죠.

동쪽인들은 이 모든 걸 거부합니다. 여자는 굳이 남자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완전한 인격체—온쪽이—이며 꿈임없는 자아발전을 통해 더욱더 동그레질 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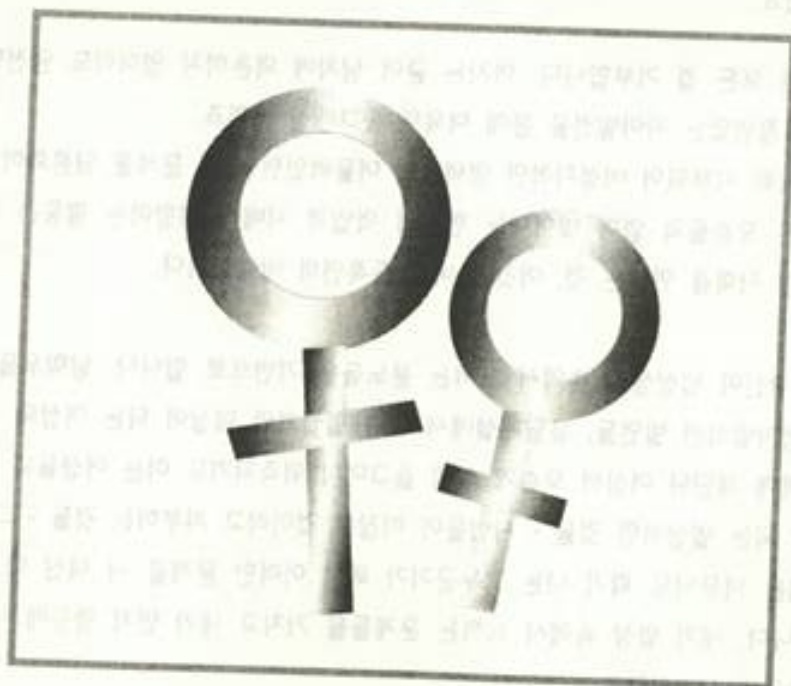
단순한 개인사로 치부되어 비정치적인 영역에만 머물러있던 성의 문제를 담론화하고 이것이 동시대의 또다른 모순들과 얽혀 빚어내는 현실의 억압과 지배에 대항하는 활동을 통해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동쪽인의 바램입니다.

여성운동은 자신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분노들을 기반으로 합니다. 남학우들이 자신도 모르게 쓰는 성차별적인 발언들, 음담패설에서 단지 말썽기의 대상이 되는 여성의 신체, 그리고 남성들에 의해 제한된 여성의 모습에 의해 슬그머니 위축되기도 하는 여성들의 모습들, 여성이기에 겪게 되는 일상적인 것들 - 사람들이 하찮은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들 - 그러나 그냥 참고만 살기에는 너무나도 화가 나는... 누군가가 와서 이러한 문제를 나 대신 해소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먼저 행동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여성운동의 시작이겠죠.

법학도로서 "법을 속에서 여성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법정에서 과연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세미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희가 법여성학을 공부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고 다들—특히 97학번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현재 동쪽은 올해가 3년째로 이번학년도에는 3기를 받게 되고 그 2기가 지금 97학번인데요, 기초적인 여성학지식도 없는 상태인데다가 전공과목 법학에 대해서도 생소했던 지난 1학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세미나와 함께 머지않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동쪽은 지난 여름방학에 본격적인 세미나를 시작하여 "성폭력학교"를 준비했습니다. '성폭력학교'는 법대학우들을 대상으로 문제의식을 일깨워보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법대학우들의 굉장한 관심을 얻지는 못하였지만 우리의 노력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저희 동쪽은 일단 세미나를 중심으로 꾸려갈 계획이구요, 후일 알림작업도 하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미성숙함으로 많은 것을 해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동쪽의 노력과 다른 모임들의 도움과 함께 동그래지는 온쪽이가 되고 다른 이들도 온쪽이가 되도록 돕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BEYOND

자, 글을 써야 하는데. 음, 뭘 써야 하지? Beyond에 대한 소개글을 써야 한단 말이지. 그런데 뭐라고 쓰지? 'Beyond'는 여성 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예요'라고 해야 하나? '포럼을 주로 개최하고 방학때에는 세미나도 하는데요'라고 이야기하면 될까? 이런건 아닌 것 같은데... 으악, 어려워, 어려워.... 이런거 꼭 써야 하나? 대중 Beyond가 뭔지 다들 아시지 않나요? 어... 모르나? 예휴. 그럼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나.....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같이 분노하고 같이 흥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Beyond다.
이런 상황을 어떤 부연 설명없이도
광장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다.

연희관 안 지하 복도에서 여자 후배의 어깨에 두 손을 얹고 위에서 찍어누르듯이 바라보며 말하는 남자 선배를 목격한 적이 있다. 불과 며칠 전의 일이었다. 너무 화가 나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내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과의 남자 선배는 단 한마디로 그 상황을 평가해 버렸다. "그자식, 짹대네..." '어, 그게 아닌데. 이건 짹대다는 말로 끝날 일은 아닌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니 너무나도 답답했다. 아주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니까 말이다. 그런 식으로 신체적인 우월을 이용해 여성에게 위압감을 주는 남성들을 보았을 때 내가 왜 화가 나는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같이 분노하고 나와 같이 흥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Beyond다. 이런 상황을 어떤 부연 설명없이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다. 우리는 (이렇게 쓰려니 꽤 어색하네요. 왜냐하면 저는 Beyond의 발기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젠 저도 어엿한 Beyondian. 우리라고 쓰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강제적 규약없이, 사회대 내에도 이런 식의 여성 모임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모인 사람들이다. 어떻게 보면 아주 절박하게 말이다. 97년에 3월 8일의

행사를 준비하면서 모인 사람들이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는,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내부의 떠밀림에 의해 만들어진 모임이기도 하다. 발기인들이 대부분 고학번인 것은 그런 까닭이다. 이런 이야기를 써도 될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 총여학생회장은 지난 학기에 Beyond의 회장이었고, 그렇기에 총여에서 말하는 '여성주의 권력'이라는 부분은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하고 친숙한 개념이다. 여기에서 강제력이 없는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친목단체 이상의 성격을 지니게 된 이유일까,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사실상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은
이러한 여성의 권력을
정치적으로 읽어내고,
정치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데에
그 목표가 있다.

사실상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은 이러한 여성의 권력을 정치적으로 읽어내고, 정치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데에 그 목표가 있다. 세미나를 하는 것은 단순한 이론 학습에 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 개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포럼을 생각해 냈다. 97년도에 개최한 두 번의 포럼은 그러한 문제의식의 발로였고 말이다. 첫 포럼의 주제는 '화장'이었는데, 이는 5월에 경쟁적으로 개최되는 미인대회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미인대회에서 여성의 획일화된 모습을 요구하는 것과 연관지어 여성의 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드러내고 싶은 우리의 생각이 '화장'과 연관되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두 번째 개최한 포럼은 '포르노'에 대한 것이었는데, 작년 겨울 이현세가 구속되면서 시작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은 가부장적 시선에 대한 우리의 의의 제기까지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우리는 그런 점을 이야기 해 보고 싶었고, 포르노에 대한 우리의 시각도 함께 나누고 싶었다. 이런 포럼은 우리가 사회에 개입할 필요성에 대한 제고와 우리의 문제 의식을 심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우리 내부에서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와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기도 한다.

보통은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따라 항목별로 팀을 구성한 뒤, 각 팀별로 자료를 찾고 그 자료를 공유하며 함께 세미나를 하면서 포럼을 준비한다. 그렇기 때문에 포럼의 주제는 대부분 우리에게 민감한, 우리에게 직접적인 것으로 선정된다. 지금 Beyond내에서는 세 번째 포럼을 준비중이고 이 포럼은 새내기들에게 여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앞에서 예로 든 것 같은 상황에 대해 함께 화 낼 수 있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화를 내야만 하고,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도 알릴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 더불어 그런 일들에 새내기들이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도 아마 포럼의 내용

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꼭 Beyondian의 시각에서 보지 않아도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런 일들에 분노하는 사람들은 늘 존재하고 그렇게 느낀 분노를 함께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언제나 있다. Beyond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하나의 공동체일 뿐이다. 우리의 포럼은 좀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그 분노를 풀어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기획되는 것일 뿐이고 말이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토론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설레게 기쁜 일인지 아는 사람은 다 알테고....

우리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충분히 알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오버 페미니스트'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고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동질감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대안 없이 수다를 떨기 위해 만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어떤 실천을 위해 서로에게 이야기를 한다.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부분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모든 답답함을 나누면서 그런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실천을 위해
서로에게 이야기를 한다.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부분에 대해
모든 답답함을 나누면서 그런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에 또 레



● 에 또 레, 이렇게 생겨 났습니다!

90년, 대학에 최루 연기가 자욱할 무렵, 대학생들이 억압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거리로 나가고 화염병을 던졌을 때였습니다. 돌을 던지는 것 말고 자유로운, 인간다운 사회를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의 중층적 모순 구조 안에서 방치된 아이들의 모습을 먼저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1대 총여학생회 시절(88년)부터 탁아소 자원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농활을 가지 못한 여학우들을 대상으로 한달 정도 수행하였는데, 이 때에는 탁아소 활동 기간이 짧았을 뿐 아니라 다니는 탁아소가 흩어져 있는 관계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자원활동가들은 관념적이고 막연한 목적 의식을 갖고 일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시 봉사적이고 개인적인 활동에 그쳤습니다.

90년부터 탁아문제가 신문에 빈번히 오르내리면서 91년 4대 총여 탁아분과는 본과장 이 정희(생물87)학형이 붙인 <에 또 레(방)>이라는 이름으로 새출발을 했습니다. 활동 영역을 구로 어린이집으로 집중하고 안정적인 자원 활동을 이루어 냈으며 활발한 본과 활동을 인정받아 현재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95년에 활동지였던 구로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되면서 현재는 독산동의 새터 어린이집으로 활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원 활동가들의 수도 약 40여명으로 늘어났고 8명의 회장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금은 지루하셨나요? 그래도 에 또 레가 8년간 이런 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만큼이나 자랐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 에 또 레는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나

현재 우리 학교내의 각 여성운동 모임에서는 탁아문제를 그다지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곳

은 거의 없습니다. 즉, 학내의 여성운동 단체들로부터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내의 여성운동을 '학생운동'이 아닌 '사회운동의 연장'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현재 학내의 탁아운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학생의 입장에서 하는 여성운동이라면, '탁아문' '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탁아운동'은 그 전부가 여성문제에만 관련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회 속의 여성 - 특히 한국사회 속의 여성 - 들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의 한 가운데에 '탁아·육아'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육아문제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고 꿈을 버리는 여러 어머니들이나, 자신들의 이상을 좇으려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어머니'라는 질책을 홀로 짊어지고 가야하는 어머니들의 예를 구태여 자세히 들지 않더라도 인지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는 육아를 여성의 책임으로 보는 잘못된 사회의 구조 때문이고, 탁아를 어머니의 육아보다는 훨씬 질 낮은 '대리육아'로 보려 하는 사회의 그릇된 인식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를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각 가정에 떠 넘겨 버리려는 사회 체제의 문제 때문인 것입니다.

육아로부터의 해방이 가사로부터의 해방과 더불어 가장 일차적인 여성 해방이라는 인식을 한다면, 코앞에 닥친 현실로서가 아닌, 사회를 바르게 인식하고 변혁하는 보다 넓은 의미로서 탁아·육아 문제는 여성 운동의 중심적인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작은 이야기

에 또 레 사람들도 때로는 활동을 하면서 회의를 느낍니다. 1년 365일 아이들은 자라고, 늘 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에 임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다음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하나. 어느 날인가 엄마 친구분을 만났습니다. 어떤 모임을 하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한다고 했더니 그분이 대뜸 그러시네요. "뭐 그런 일을 하니?"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절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육아로부터의 해방이
가사로부터의 해방과 더불어
가장 일차적인
여성 해방이라는 인식을 한다면,
코앞에 닥친 현실로서가 아닌,
사회를 바르게 인식하고 변혁하는
보다 넓은 의미로서
탁아·육아 문제는
여성 운동의 중심적인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울, 학관을 지나가다 학교 후배를 만났습니다. 애포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애가 대답 그러더군요. "음, 좋은 일 하시네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절대 '좋은 일-선행'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엣, 간만에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습니다. 애포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애는 묻더군요. "남자도 그런 일 하니?"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절대 '여자의 일'이 아닙니다. (참고로 애포레 사람의 절반 이상이 남학우 랍니다)

거창한 것을 꿈꾸지는 않습니다. 자신 있게 내세울 만한 이념이나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아이를 낳아 기르게 된다면, 적어도 내 아이 만큼은 지금보다 조금은 더 나은 곳에서 뛰어 놀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바로 배울 수 있는 곳하기를 바랍니다. 또, 내 아이가 결혼할 때쯤이면 아이 말길 사람을 찾아 친정 집의 눈치를 보거나 보육료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는 엄마들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이제 애포레에 대해 조금은 아시겠지요?



여성주의 문화 실험 모임
FEMINISM IMAGE CREATOR
웬WOMB

디아터가 웬WOMB 이 되었어요!!!

"나는 단지 내가 보고 기분중으려고 화장을 하는 거예요."

"서편제는 역시 한국의 미학을 너무도 잘 표현해 놓은 작품이죠. 거기서 여주인공이 경관을 당하거나 눈이 멀게 되는 것은 다만 '한국의 미학'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남자가 바깥일을 하고, 여자가 집안일을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볼 때 효율적인 방식이고, 따라서 당연한 행위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당신의 의도는 세상에 온전하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당신의 취향은 당신 본인의 선택일지...지금의 세상은 그렇게 숙명적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결과일지...우리 한번 둔감하고 굳어진 각자의 더듬이를 떠돌고 비판적인 주파수로 세상을 더듬어보도록 할까요?

문화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는지... 문화예술, 문화현상, 문화계...

CULTURE의 어원은 발을갈다, 가축따위를 기르다. —>인간의 인격을 배양하다. 정신의 수준을 높이다.—>상류층 사람들이 향유하는 예술을 포함한 생활—> 문명화 개화시키다.—>대중문화/고급 문화 등의 구분이 생겨나고,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문화의 수많은 의미 중 '총체적 생활 양식'이라는 뜻.

웬이랑?
지금 혹은 생명이
래어리고
원성되어기는 곳,
세상,
뒤집으면 꿈'몽',
여성 표시(우)가 네모란
여성들의 지지를 받고 서
있는 모습

그중에서도 '의미나 이미지들을 생산하는 모든 일'들에 주목할 생각입니다.
우리 움틀이들은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일상에서나 영화, 만화, 소설, 드라마, 연극, 춤, 노래 등의 대중문화속에서 우리가 말하고 표현되어지는 방식, 모임이 꾸려지고 권력이 배분되는 형식에 대한 시비걸기를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당연하다고 믿는 일상의 세세한 부분들은 사실 억눌려왔던 우리의 상상력의 고갈을 드러낼 뿐입니다. 불가능한다는 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말에 불과하다는 명언을 들어보셨는지요. 그리하여 우리 움틀이들은 무엇이 여성주의적인 내용이고 무엇이 여성주의적인 방식일지에 대한 당장의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나긴 여성주의의 탐험, 실험을 해나갈 예정이랍니다.

구체적으로는 당대의 여성주의자들의 의견을 참고로 우리의 생각들을 다져나가는 "책썰어먹고 소화시키기"가 꾸준히 있어야겠죠.

또한 학생화관 3층에 놓고 있는 여학생 휴게실을 여성들에게 좀더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여성 문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할 생각(그 안에서 여성 모임들과 여학생들과 총여가 서로에게 연결되고 의사 소통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게 날적이와 게시판 마련, IMF 기념 게시판 장터 설치, 아늑한 흡연, 휴식, 수면을 위한 공간 관리, 정기적으로 영화보고 출출한 배를 라면으로 채우며 자기식으로 영화찍는 자리라면 등등의 일을 할 수 있겠죠...이런 학기내에(?)), 그 안에서 맘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외외의 수확도 있을 수 있고.

또한 한마디 사소한 농담이나 불편한 표정에서부터 성추행에 이르기까지 성으로 인해 곤란한 순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유정미용과 함께 TRAINING SPARKING에서 함께 생각해내고 자료로 남기는 시간도 갖고,

우리가 새롭게 문화를 생산해내고 패러디하는 "노래 공연, 퀘트 전시회, 영화만들기, 릴레이 소설 쓰기"등도 해보면 좋겠죠. 그리하여 예술적으로도 끼가 넘치는 멋진 움틀이들이 필요하답니다.

전여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여성 캐릭터를 제시해 볼 수도 있고...
세상에나~~말 일은 많고 공간은 적지만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들부터 예니까며
여성주의적인 혹은 예술적인 까에 대한 터는 목마름을 해소시켜며
속시원 시원하게 대학 생활을 꾸려보자구요.

우우우우우우우우♡♡♡♡♡ ♪♪♪♪♪ ~~~*^_^* 우우우우우우우우

현 애포래 공간 어떻게 할까요?

애포래 활동의 독립적인 성격상 총여학생회의 탁아분과라는 위상이 부적합하게 되어 이번에 **자치단체**로 위상 변화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애포래가 사용해 왔던 공간을 다른 자치단체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자치단체들과의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하려고 하며 애포래의 기본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포래에 있어 공간이 지니는 의미는 다른 자치단체들과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활동지가 외부에 있는 탓에 학내 활동과 자활가의 모임을 위한 공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8년간 애포래가 공간을 사용할 뿐 아니라 관리에 왔다는 점과 활동 인원의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애포래가 계속해서 공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예산 등의 다른 불이익은 감수할 생각입니다. 애포래는 일주일에 두 번, 월요일 세미나(오후6시)와 토요일 놀이방 준비모임(오전10시) 이외에는 정기적인 모임이 없으므로 평일 오후 6시 이후에는 다른 자치 단체들의 세미나와 회의를 위한 장소로 공간을 개방하겠습니다.

이상의 제안에 관하여 자치단체 한마당에서 보다 자세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중여학생회 생활도서관 도서목록

■ 여성학 ■

<입문서>

여성학 사회
여성학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
한국의 여성과 남성
여자는 왜?
삶의 여성학
성의 사회학
새내기 여성학
섹스북
여성 망명정부에 대한 공상
WMST-107-01
페미니즘: 무엇이 세계를 움직이는가
그 많은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는가

<이론>

여성의 신비
성의 변증법
여성해방의 이론체계
여성해방 사상의 흐름
여성의 지위
여성학의 이론
현대여성해방사상
성의 사회학
에로스와 문명
여성해방이론의 쟁점
성의 역사1
성의 역사2
성의 역사3
성과 텍스트의 정치학
여성해방의 정치학
포스트구조주의와 페미니즘 비평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사랑의 역사
페미니즘 이론사전
페미니즘과 계급정치학
페미니즘사상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문화적 투쟁으로서의 성
하나님, 아버지를 넘어서
성적차이와 페미니즘
재생산의 비밀
크리스테바 읽기
페미니즘과 정신분석학 사건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만남

<여성운동>

한국의 가난한 여성에 관한 연구
하늘의 절반(중국의 혁명과 여성해방)
여성학 혁명운동
세계여성운동②
내가 살고 싶은 세상(10호)
인물여성사(한국편)
열린 사회, 자율적 여성(2호)
환경운동과 여성의 정치적 주제 형
-에코페미니즘과 여성환경운동-(논
세계사를 바꾼 여성들

<성차:여성성/남성성>

새부족 사회에서의 성과 기질
우리 속에 있는 여신들
일곱가지 여성 콤플렉스
XY:남성의 본질에 대하여
우리 속에 있는 남신들
일곱가지 남성 콤플렉스
지배문화, 남성문화(4호)
우리 속에 있는 숨어있는 힘
과학과 젠더

<가족, 결혼, 사랑>

가족의 기원
폭력없는 탄생
주부, 그 막힘과 트임(6호)
새로 쓰는 사랑 이야기(7호)
새로 쓰는 성 이야기(8호)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
가족은 반사회적인가
누르는 교육, 자라는 아이들(5호)

무엇이 여성을 분노하게 하는가
평등한 부모, 자유로운 아이(1호)
새로 쓰는 결혼 이야기1(11호)
새로 쓰는 결혼 이야기2(12호)

<성폭력: 정신대문제, 매춘>

가부장적 이론에서 파생된 윤락여성의
선교적 대응방안 연구(논문)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한국의 매춘
나의 몸, 나의 길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권력과 매춘

<여성노동>

여성, 노동, 법
여성학 노동
여성학 생산양식
사적유물론과 여성 해방
여성의 노동, 여성의 삶
로자 룩셈부르크
여성 노동의 역사
로자 룩셈부르크

<성정치, 동성애>

성의 정치학(상)
성의 정치학(하)
Lesbian and Gay Studies Reader
섹슈얼리티: 성의 정치학
섹스, 포르노, 에로티즘: 쾌락의 악몽을
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
동성애자 해방운동과 맑스주의
미셀푸코, 섹슈얼리티의 정치와 페미
누가 성정치학을 두려워하라
레즈비언/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본 서구 레즈비언
이론의 발전과정과 역사적의의에 관한 연구(논문)

<문화>

문화비평사
여성해방 문학의 논리
세계종속사 (상)
세계종속사 (하)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9호)
광고의 신화, 욕망, 이미지

상징을 죽여라
신세대:네 멋대로 해라
다시 쓰는 여성과 문학
문화연구입문
사운드의 힘
여성해방의 문학(3호)
포르노그래피
문학과 페미니즘
포르노에 도전한다

■ 예술 ■

<문학>

소중한 사람들
유리과수문:여성작가가 쓴 여성문제
위기의 여자
무사들
길찾기:소설로 보는 여성문제
너의 침묵에 매마른 나의 입술
제2의 성(상)
제2의 성(하)
프랑켄슈타인
3기니
빛장을 여는 사람들
이갈리아의 딸들
인간의 시작(1)
인간의 시작(2)
자기만의 방
버지니아 울프
선택

<미술>

쉬르 섹슈얼리티
페미니즘 미술의 이해
여성, 미술, 이데올로기
나는 내 그림 속에 있었다

<영화>

페미니즘/영화/여성
베트남에서 레이건까지
씨네 페미니즘:대중영화 꼼꼼이 읽기

review ① (CN documents) Iraq

to fuel gas
1 tear

②

UN offi

security commitment ~~②~~ ✓

suspended ~~④~~

exaction accusation ✓ ~~①~~

fairness riotery ②

evacuated. (move out) ④

underscore (emphasize) the point ②

retaliation ✓ (= revenge) ~~③~~

undermining (slowly weaker) ①

mosque (Muslims) ~~③~~

compliance ✓ = obedience (d) ①

tour ②

cargo ④

inspector ~~②~~ ①